부처님 정법 세계로 펼친 아쇼까대왕

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년 연재를 마치며

내가 인도를 처음 간 것은 1995년 2월 초순이었다. 27년 전의 일로 여행기간은 한 달 간이었다. 인도 비하르주의 부처님 유적지와 수도 델리, 힌두교 최대성지인 바라나시, 영화산업이 발달한 뭄바이 등이었다. 후배 작가 두 사람과 동행했는데 모두가 초행길이었다. 그때 우리는 부처님 유적지에서 아쇼까석주와 아쇼까탑을 발견하곤 했다. 아쇼까석주와 아쇼까탑은 그 자리에 부처님의 성스러운 그림자가 남아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불자인 나는 그때 아쇼까왕에게 고마워했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행했던 후배시인 윤제림 작가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 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아쇼까왕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서적이나 논문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서적이나 자료만 보는 것이 실감나지 않아서 다음해부터는 2년 터울로 인도를 가곤 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인도를 15번이나 다녀온 셈이 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차츰 아쇼까왕 유적지답사나 부처님 성지순례로 바뀌었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아쇼까왕을 형상화하는 소설 집필이 작가로서 숙원작업으로 바뀌어버렸다. 불교작가로서 장편소설인 〈산은 산 물은 물〉 〈소설 무소유〉 〈인연〉 〈가야산 정진불〉〈야반삼경에 촛불춤을 추어라〉〈다산의 사랑〉 〈시간이 없다〉〈굿바이 붓다〉〈굿모닝 관세음보살〉, 그리고 산문집인 〈암자로 가는 길〉 〈선방 가는 길〉 〈불국기행〉 〈법정스님 인생응원가〉〈정찬주의 다인기행〉〈행복한 무소유〉 등을 발간하면서 나이 칠십에 이르도록 항상 머릿속에는 아쇼까왕 소설구상을 놓아버린 적이 없었던 것이다.

"발원이 간절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불가의 스승이셨던 생전의 법정스님께서 종종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작년 1월 나에게 연재할 기회가 선물처럼 주어졌다. 현대불교신문에 매주 1회씩 신문 한 면 분량을 연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지면이 허락한다면 1백회 정도 연재하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아쇼까왕의 진면목을 펼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아쇼까왕은 알렉산더왕이나 징기스칸과 더불어 세계 3대 대왕이라고 불리어 왔기 때문에 충분한 지면이 필요했던 것이다.

더구나 아쇼까왕은 알렉산더왕이나 징기스칸이 가지지 못한 덕목이 있었다. 세 명의 위인 모두 정복왕이기는 하지만 아쇼까왕에게는 21세기 리더십으로도 손색이 없는 특별한 철학이 있었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선왕이 이루지 못했던 깔링가국을 정복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는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담마의 정복자'가 되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아쇼까왕의 대전환은 갑자기 이루어진 즉흥적이고 돌변적인 것은 아니었다. 99명의 왕자들을 죽인 잔혹한 권력투쟁에서 성공하여 왕권이 안정된 이후였다. 왕위에 오르기로 돼 있었지만 독살당한 이복형 수시마의 아들인 니그로다 어린 사문으로부터 짧은 법문을 듣고 마음을 움직였다. 그때 아쇼까왕 마음속에는 이복형 수시마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던 것도 니그로다를 환대한 요인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자신이 창건한 아쇼까라마의 수석장로 목갈리뿟다띳사를 자주 만나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갔다. 마우리아왕국의 도시마다 8만 4천 개의 사원과 탑을 조성하고, 고명한 장로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공양하는 등 '승가의 보호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출가시켰다. 친동생 비가따쇼까, 사위 악기브라흐마, 외손자 수마나, 아들 마힌다, 딸 상가밋따 등을 출가시키어 '믿음의 실천자'가 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십여 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깔링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뒤 다야강에 칼을 버리고 '북소리의 정복자' 대신에 부처님 법으로 세상을 통일하는 '담마의 정복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아쇼까왕의 다중적인 캐릭터를 그의 혈통에서 찾아냈다. 마우리아왕국을 건국한 할아버지 짠드라굽따왕은 주도면밀하고 영악했다. 동방원정에 나선 알렉산더왕에게 다가 가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아 인도를 통일하겠다는 그의 야망을 보아도 그랬다.

기원전 329년, 알렉산더는 네팔의 국경지방인 삡팔라바나에서 온 한 젊은 장수를 만났다. 그가 바로 짠드라굽따였다. 마우리아족인 그는 동인도 한 지역을 본거지로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던 난다왕국을 멸망시키겠으니 군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난다왕국은 부처님이 계실 때 가장 강력했던 마가다왕국을 무너뜨리고 나서 20여 년간 왕조를 유지하다가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탓에 민심이 흉흉한 왕국이었다.

탁실라와 인도서북 지역을 정복한 알렉산더왕은 짠드라굽따의 청을 거절했다. 알렉산더는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인도를 정복하는 동안 자신의 군대가 풍토병과 독충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권위를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오히려 짠드라굽따를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언도했다. 그러자 짠드라굽따는 천신만고 끝에 정글로 도망쳐 나와 목숨을 구했다. 이후 와신상담하던 짠드라굽따는 뜻밖의 기회를 잡았다. 알렉산더왕이 인도서북 지역을 정복한 지 1년 만에 주력부대를 점령지에서 철군시킨 뒤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짠드라굽따는 점령군에게 핍박을 받던 인도서북 사람들을 선동하여 인도에 남아 있던 알렉산더 군대를 격파했다. 이후 짠드라굽따는 그 여세를 몰아 탁실라와 인도서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파죽지세로 난다왕국을 멸망시키고 인도 전역을 정복해 갔다. 마침내 짠드라굽따는 마우리아왕국을 건국했다. 짠드라굽타는 마우리아왕국을 24년간 통치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군대는 인도의 어느 왕조보다 강했다. 60만의 보병과 3만의 기병, 그리고 9천의 코끼리부대를 보유했다. 알렉산더에 이어 기원전 305년에 그리스의 셀레우쿠스가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공격은커녕 점령한 인더스강 주변의 땅을 되돌려주고 짠드라굽따와 혼인동맹을 맺고 퇴각할 정도였다.



바이샬리 아쇼까석주, 사자가 응시하고 있는 곳은 부처님의 열반지 꾸쉬나가라이다.

아쇼까대왕, 21세기 리더십으로도 손색 없는 특별한 철학을 지닌 리더
전쟁 참혹함 목격하고는 칼 버리고 佛法, 즉 '담마 정복자' 되기로 맹세
인도 15회 순례 후, 머릿속에는 아쇼까왕 소설구상을 놓아버린 적 없어
처음에는 1백회 정도 연재 생각…시간에 쫓겨 아쉽게 결말 부분 마무리

마우리아왕국의 제2대왕은 짠드라굽따왕의 아들인 빈두사라였다. 빈두사라왕 역시 무력정복을 멈추지 않았다. 잔혹한 그의 영토는 더 넓어져 중앙인도와 데칸고원까지 내려갔다. 제국이 된 영토를 분할통치하기 위해 그는 많은 왕자를 두었다. 16명의 부인을 맞아들이어 101명의 왕자를 보았다. 첫째 왕자인 태자는 수시마였고, 맨 마지막 왕자는 아쇼까의 친동생인 비가따쇼까였다. 빈두사라왕은 자신의 성격을 빼닮은 아쇼까를 싫어했다. 아쇼까는 장성해서도 빈두사라의 눈에 들지 못했다. 태자인 수시마 부왕이 다스리는 탁실라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빈두사라왕은 아쇼까를 보냈다. 충분한 군사를 지원해 주지 않은 채 사지로 보낸 셈이었다. 그러나 아쇼까는 민심을 얻어 반란을 평정하는 공을 세웠으므로 대신들의 신뢰를 얻었다.

빈두사라왕이 병석에 눕자, 웃자인 지방을 다스리던 아쇼까 부왕은 마우리아왕국의 수도인 빠딸리뿌뜨라로 올라가 99명의 이복형제 왕자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4년 동안 살육이 끊이지 않는 왕자의 난이 벌어진 것이다. 살아남은 왕자는 친동생 비가따쇼까뿐이었다.

아쇼까왕의 캐릭터 형성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한 인물은 아쇼까왕의 어머니 다르마 왕비와 아쇼까가 웃자인에 부왕으로 내려가 있을 때 만났던 데비였다. 다르마 왕비는 브라흐민 신분으로 고향 짬빠성에서는 아지비까교 수행자들에게 공양했지만 빠딸리뿌뜨라성에 들어온 이후에는 목갈리뿟다띳사나 우빠굽따 같은 장로들에게 감화를 받으면서 독실한 불교신자가 되었고, 데비는 바이샤 신분으로 상인수장이었던 아버지가 산치 동산에 개인원찰을 조성했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불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던 것이다. 아마도 아쇼까왕은 다르마 왕비와 데비에게서 부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모르게 훈습되지 않았을까 싶다. 아쇼까왕의 캐릭터를 보면 영악한 야망도 있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비정함도 있고, 숨을 거둘 때는 자신이 먹어야 할 과일 조각까지 승가에 보시하는 자비가 있었으니 그것들이 어떤 인물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작가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나는 소설 연재를 들어가기 전에 아쇼까왕의 위대함을 불자의 입장에서 먼저 찾아보았다.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아쇼까왕에 의한 불교의 세계화였다.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아쇼까왕이 담마사절단을 스리랑카는 물론 지중해 연안인 이집트, 그리스, 시리아 등에 파견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한중일 삼국은 물론 동남아 전체에 불교가 전통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봐야 옳았다. 다시 말하면 아쇼까왕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다면 불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한 채 인도에서 소멸했을지도 모르므로 부처님이 정법을 세상에 처음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라면 아쇼까왕은 정법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세계로 펼친 전륜성왕인 것이다.

두 번째는 종교 간에 화합을 도모한 관대함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승가를 정화하되 모든 종교 수행자들을 우대했는데, 아지비까교 교단에 사원의 규모와 버금가는 동굴법당을 세 개나 기증한 것만 봐도 그의 종교적 태도를 알 수 있음이다.

세 번째는 석주나 바위에 새겨진 담마칙령을 통한 통치이다. 담마칙령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과 동물의 행복을 추구한 복지와 자선정책이다. 서구의 르네상스가 신본주의에서 인간중심의 휴머니즘사상을 일으켰다면 아쇼까왕을 통한 부처님 정법은 신본주의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운 생명중심사상이라고 해야 할 터이기 때문이다. 이는 21세기 오늘날의 지도자들과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생태복지 리더십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나는 아쇼까왕의 모든 것이 이 연재소설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아쉬운 점도 많다. 특히 시간에 쫓긴 마지막 결말 부분이 그렇다. 그러나 2년이라는 연재기회는 내게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현대불교신문사 여러분과 담당 기자 분, 삽화를 맡아준 화가 분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 또 잊을 수 없는 분이 있다.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과 무량심 회장보살님이다. 이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집필하는 동안 큰 힘이 되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독자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특히 소설을 정독한 뒤 내게 문자로 보내온 허정스님의 촌평은 연재소설의 허술한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니 말이다. 교정을 보아준 호연보살에게도 고마움도 표하고 싶다.

〈아쇼까대왕〉은 연재 중에 이미 불광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했다. 영역을 하고 칼라삽화를 선별해서 넣기로 했다. 내년 2월 말쯤에 발간될 예정이니 우리 불자 분들의 더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22년 12월 15일 이불재에서
소설가 정찬주 합장



몸과 마음에 유익한 氣를 발생시키는 제품 퀀텀참

QUANTUM CHARM!



정면 12×12cm, 측면 두께 4.5cm
순금판을 이용한 실제 제품 사진입니다.
옆에 두어도 뇌파,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퀀텀참은 양자파동을 내는 부적이란 뜻입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여러 부적을 사용해왔는데 그중 가장 수승한 것이 천부인(天符印)입니다.

퀀텀참은 천부인의 재현에 해당됩니다. 퀀텀참은 뇌파, 맥파를 안정시키고 생체자기장(오라)을 상향시킵니다. 뇌파, 맥파는 최정미 박사님의 예비시험에서 확인되었고 오라는 이영좌 교수님의 시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의 사용은 오라를 하향시키는데 퀀텀참을 간섭시킨 보조배터리(충전할 때 퀀텀참을 전선 위에 둠)를 사용하면 오히려 상향됩니다.

퀀텀참의 기가 전자에 얽혀 배터리에 저장됨으로써 휴대폰 사용 시 소리와 영상을 통해 기가 증폭되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 휴대폰의 소리와 영상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이 있지만 다른 파동을 간섭받으면 고유파동이 변하게 되며, 특별한 여건에서 수준 높은 상위의 파동을 간섭받으면 받은 파동이 얽히게 되어 얽힌 파동을 지속적으로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가 순금으로 된 미묘한 기하학적 구조일 때 더 수준 높은 파동이 증폭되어 나옵니다.

전설의 금척, 천부인도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 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동경잡기, 삼국유사, 부도지 본문과 증심록 추기 등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부도지에서 천부인을 천지본음지상(天地本音之象)으로 묘사하고, 부도지 증심록 추기에서 금척을 '허실지수 구이성십 차즉천부지수야 (虛實之數 九而成十 此則天符之數也)'로 나타내는 것은 대단한 비밀입니다. 순금으로 미묘한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고 이것에 천지의 수승한 기(氣), 수준 높은 상위 세계의 기(氣)를 전이시키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시춘추에서는 천부를 성,명,정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목은문집에서는 비서[(祕書)풍수비전]의 이치가 천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의역). 풍수비전은 전후,좌우,상하로 분열되는 기가 중앙으로 응축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천부에 부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 명, 정(性命精)의 원리는 연정, 연기, 연신(練精, 練氣, 練神)인데 간단히 말해서 기를 닦아 그 수준을 높이고 높아진 기에서 발생되는 마음으로 진리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기 수준에 비례하므로 기 수준을 높여야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곧 천부사상입니다. 천부인은 이 철학을 내포하는 동시에 수승한 기를 내는 신물입니다. 천부인을 부도지에서 천지본음지상이라고 한 자체가 천지의 수승한 기가 천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척도 천부인과 궤를 같이 하므로 금척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증심록 추기에서 김시습은 훗날 누군가 금척을 재현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부도지에서도 천부를 옥에 새겨 이용했다고 했으니 이것도 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퀀텀참은 이런 것에 부합하는 기를 내는 재현제품입니다. 퀀텀참은 소리, 영상, 빛 등에 공명하여 기를 좋게 하고 뇌파,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소리, 영상화면, 빛의 수준을 좋게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산업적,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기전도율, 영상, 음향, 표면장력, 혈액점도, 활성산소, 인슐린 등을 시험해 볼 계획입니다. 퀀텀참1 외에 2,3,4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퀀텀참의 금판은 999.9‰이고 중량은 약 4.29g입니다. 정가는 500만원이고 일정기간 350만원에 보급합니다. 주문 시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리산 홍명 밀행자

정가 500만원 특판가 350만원 구매문의 시산 010-3775-9981